

### 3. 내가 느낀 것

불확실성을 즐겨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결국 세상일이라는 것은 어찌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닐까. 누가 당대 최고 수학자들의 집단적 실패가 컴퓨터로 이어지고 세계화와 정보혁명을 낳을지 상상할 수 있었을까? 인생만사 새옹지마라는 고사의 힘을 다시 느낄 수 있었다. 나 또한 목표 했던 바에 실패하거나 일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아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마음가짐을 가져야겠다. 그 실패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거니까. 물론 힐베르트, 괴델처럼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먼저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말이다.

한편으로는 팀, 친구, 스승과 제자라는 것이 갖는 힘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다. 튜링은 그 자신이 명석하기도 했지만 열정과 잠재력을 봐준 스승 덕분에 역사에 이름을 남겼다. 뉴먼은 제자의 지적 성취를 지켜보면서 그 스스로도 분명 즐거웠을 것이고 많은 자극을 받았을 것이다. 힐베르트는 러셀, 화이트헤드, 괴델과 같은 팀을 이루었기 때문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결론을 보고 죽을 수 있었다. 흔히 생각하는 이미지처럼 창조성은 어두운 실험실에서 홀로 실험을 하는 고독한 괴짜가 만들어내는 게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우리를 둘러싼 사회관계망이 주는 자극과 아이디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다.

그리고 우리 일상을 구성하는 많은 것들의 원리에 대해 더 호기심을 가져야겠다고 느꼈다. 나는 24시간을 컴퓨터와 함께 생활한다.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그럴 것이다. 하지만 역시 다른 대부분의 현대인들처럼 컴퓨터의 기원과 작동방식에 대해서는 별 생각을 기울이지 않았다.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마우스 클릭과 키보드 입력, 모니터로 출력되는 영상 등을 자연스럽게 생각했다. SF 작가 아서 클라크는 “충분히 발전한 과학은 마법과 같다”라고 했었다. 컴퓨터 또한 마법과 같은 것으로 여겼던 것 같다.

하지만 컴퓨터는 그저 당연히 주어진 것도 아니고 마법은 더더욱 아니다. 컴퓨터는 400년 동안의 축적이 꽃핀 인간 지성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그 원리는 인간이 “의식적으로” 만든 지적 산물이기에 마법이 아니다. 그리고 초월적인 천재가 아닌 그저 조금 더 열정 있는 인간이 설계한 것이기에 주의를 기울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

사실 우리 주위의 수많은 것들도 비슷한 이치 아닐까? 숨을 쉬는 것, 배터리가 전기를 저장하는 활동, 우리의 잠을 달아나게 하는 카페인의 작용 등 말이다. 각각에는 그 나름의 물리화학적 제약과 진화의 역사가 새겨져 있고, 그것을 이해하고자 한 인간의 지적 노력이 있다. 또 제2차세계대전과 냉전이 컴퓨터 개발을 자극한 것과 같은 거시적인 정치, 경제, 사회적 맥락이 있다. 컴퓨터에 깃들여 있는 것 같은 이야기와 드라마 하나하나를 우리 일상 속에서 더 많이 알아가 보면 그 자체로 세상이 더 재밌게 느껴질 것 같다.

또 한국인들이 앞으로 맡을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컴퓨터과학이 여는 세계”에 나와 있듯이 튜링이 논문을 발표했던 1936년에 한국인들이 내세울 사람은 손기정 선수밖에 없었다. 독자적 지적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식민지 조선인들의 한계였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다. 한국은 GDP로 세계 10위권에 근접한 경제대국이 되었다. 그리고 이런 비상

의 중심에는 컴퓨터가 있었다. 한국인들은 세계 경제의 등뼈가 되는 컴퓨터 분야에 누구보다 빨리 진출한 추격자였다. 한국을 두 번째 인터넷 국가로 만든 전길남 박사 같은 분이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그리고 이제는 남들의 발전을 따라가는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가 될 시점 아닐까? 튜링은 멀게는 라이프니츠부터 가깝게는 힐베르트, 괴델에게서 받은 아이디어를 컴퓨터로 만들었다. 튜링은 앞선 선배들의 작업을 왕성하게 흡수해 새로운 시대의 초석을 닦았다. 경제발전을 시작한 이래로 한국도 마치 튜링과 같이 열렬히 서구의 과학 지식을 흡수해갔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튜링의 1935년”이었던 셈이다. 이제는 그것을 자신만의 것으로 보여줄, “튜링의 1936년”이 다가오면 좋겠다. 우리 자신의 문제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자신 있게 남들에게 보여줄 역량. 그것이 1936년의 앨런 튜링과 같은 해에 일장기를 걸어야 했던 손기정 선수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일 것이다. 또 1936년의 조선처럼 아직 독자적 지적 기반을 갖추지 못한 나라들에게도.